

세계정당연대의 원상복합인 공동프로로 양상을 기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남명IC 구간 광복 동원로 관통 (임핑 동원명IC 영수증 프로그램 개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ndy.com 0801-320-7700

## 이빨 빠진 '호랑이' 힘겨운 '잇몸 투혼'

“KIA의 투타 신바람 주역을 찾아라.”

시범경기 1위로 야심 차게 2008시즌을 시작했던 KIA 타이거즈가 부상 때문에 번번이 발목을 잡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KIA는 서재응·리마라는 '빅 리거'를 내세운 든든한 마운드로 시즌 돌풍의 주인공으로 꼽혀지던 두 선수가 합작한 승수는 7승에 불과하다. 게다가 윤석민·리마-서재응-전병두-이대진으로 가동되던 선발 로테이션은 부상 직격탄을 맞으면서 19일 현재 생존자가 리마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설상가상 리마의 활약여부는 오리무중이다. 퇴출설과 함께 2군행의 수모를 겪었던 리마는 지난 13일 SK와의

경기에서 유격수의 실책을 빌미로 6실점(1자책)하며 1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강판 되는 듯 불안하다. 평균자책점도 5.24로 저조하다.

그러나 곳곳이 마운드를 지켜주던 서재응은 오른쪽 허벅지 부상에 이어 팔꿈치 부상으로 또다시 2군에 내려갔다. 나홀로 8승을 올리며 팀을 지탱하던 윤석민도 팔꿈치 근육이 뭉쳐 휴업상태고, 지독하게 승승이 따르지 않던 이대진도 윤석민과 같이 재활군에 이름을 올렸다. 전병두는 SK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초토화된 마운드에서 이병석이라는 '깜짝스타'의 탄생은 그나마 위안이다. 지난 5월7일 삼성을 상대로 자신의 프로데뷔 첫 승을 거두었던 이병석은 이후 4경기에서 승을 챙기지 못하다가 지난 5일 한화전 이후 3연승 행

진중이다. 위기에 급격히 흔들리던 모습도 안정됐다. KIA는 일단 새로 영입한 용병 디아즈를 중심으로 '발레 마운드'를 가동하면서 위기 타파에 나선다. 18일 이동현을 2군에서 불러들였고, 4승을 챙긴 사이드 손영민과 좌완 양현종도 선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선발감으로 팬들의 기대를 모아왔던 고우석의 활약 여부도 마운드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부상의 여파는 마운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거포 최희섭과 포수 김상훈이 부상으로 팀 전력에서 이탈한 지 오래고, 지난해 타격왕 이현근도 부상으로 힘을 못쓰고 있다. 메이저리그 수비로 기대를 모았던 발테스는 부진을 거듭하다 퇴출됐다.

최희섭의 공백을 틈 타 팀 내 최고의 거포로 자리를 잡은 이재주가 얼마나 꾸준한 타격을 보여주느냐가 팀 공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상훈의 복귀가 임박하면서 안방마음을 대신해온 차일목과 SK에서 새로 동지를 둔 이성우의 경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발테스의 공백과 허벅지 부상으로 고전하는 이현근의 지원에는 신인 김선빈과 최용규가 나섰다. 경멸부족이 아쉽기는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KIA는 두 신인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남은 선수들이 주전의 빈틈을 얼마나 잘 메우느냐에 따라 6월 반격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 선발 마운드 초토화

### 리마 빼고 전원 부상

### 중위권 도약 초비상

### '부상'



이대진 윤석민

### '대타'



고우석 디아즈



김상훈 이현근



이성우 최용규

## SK 김성근 감독 "죄송합니다"

### '윤길현 육설' 책임 어제 결장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김성근 감독(사진)이 '윤길현 사태' 책임을 지고 19일 잠실 두산전에 결장했다.

김 감독은 이날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하는 의미로 오늘(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과) 경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며 "경기 지휘는 코치들이 맡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코나미컵 결승전에서 주니치에 진 뒤 올해는 꼭 우승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선수들) 교육이 부족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감독 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맡은 경기를 결장해야 한다는



사실이 삶을 짊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영철 사장이 함께 나와 김 감독과 함께 머리를 숙였다. 앞서 SK 투수 윤길현(25)이 15일 문학 KIA전에서 최경환(36)의 머리 쪽으로 향하는 볼을 던진 뒤 도발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면서 육설을 내뱉는 장면이 TV 중계 화면에 잡히면서 논란에 휩싸인 끝에 2군으로 내려가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린 '유로 2008' 러시아-스웨덴의 D조 경기에서 러시아의 안드레이 아르샤빈(왼쪽에서 두 번째)이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러시아가 2-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계속되는 '히딩크 마법'

### 러시아, 스웨덴 2-0 완파

### D조 2위로 8강 막차 합류

열기를 더하고 있는 2008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에서 8강 진출국이 모두 가려졌다.

관심을 모았던 러시아가 19일(한국시간) 새벽 '히딩크 마법'을 앞세워 D조 최종전 상대인 스웨덴을 2-0으로 완파하면서 조 2위를 확정해 막차로 8강행 티켓을 얻은 것.

이로써 8강은 포르투갈(A조 1위)-독일(B조 2위), 크로아티아(B조 1위)-터키(A조 2위), 네덜란드(C조 1위)-러시아(D조 2위), 스페인(D조 1위)-이탈리아(C조 2위) 대결로 압축됐다.

'죽음의 C조'에서 2006 독일월드컵 준우승팀 프랑스가 탈락하고 A조에 속했던 동유럽의 '강호' 체코가 8강 진출에 실패한 걸 제외하고는 큰 이변이 없는 대진이다.

가장 먼저 '유럽의 브라질' 포르투갈과 '전차군단' 독일이 20일 오전 3시45분 스위스 바젤 스타트 아레나에서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A조에서 터키를 2-0, 체코를 3-1로 완파하고 일찌감치 8강행을 확정된 포르투갈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주전급을 뺀 마지



막 3차전에서 스위스에 0-2로 달미를 잡았다. 포르투갈은 하지만 막강 화력을 앞세워 간신히 B조에서 살아남은 독일을 꺾고 사상 처음으로 앙리드르네킵을 불러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맞서는 독일은 조별리그 부진을 털고 통산 상대전적에서 7승5무3패로 앞선 포르투갈을 제물 삼아 4강행을 확정짓겠다고 버리고 있다.

3전 전승으로 8강에 안착한 크로아티아는 A조 조별리그에서 체코의 추격을 뿌리치고

합계 8강에 합류한 터키와 외나무 다리 대결을 벌인다.

또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은 9점을 뽑으며 3전 전승을 올린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는 가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의 돌풍 잠재우기에 나서고 '무적함대' 스페인은 독일 월드컵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제패하려는 이탈리아와 8강 대결을 벌인다.

## 히딩크의 '알궂은 운명'

### 22일 스위스 바젤에서

### 조국 네덜란드와 8강전

전에서 1-4로 대패한 경험이 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후반에만 네 골을 허용한 끝에 완패를 당했다. 포르투 비스트로 프가 후반 32분 한 골을 만회했지만 리안 바벌, 베슬러이 스네이더르, 요리스 마테이션, 라파엘 판데르 파르트에게 골 찬치를 허용했다.

네덜란드 프로축구 명문 PSV 에인트호번 사령탑을 맡기도 했던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 (마르코 판 바스텐) 감독을 비롯해 7년 동안 함께 일했던 코칭스태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소련 이후 쇠락의 길을 걸어 온 러시아

는 '히딩크의 마법'이 8강에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네덜란드 출신 히딩크 감독이 지도자 인생에서 적지 않은 이변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을 2002 한·일 월드컵에서 4강으로 이끈 그는 2006 독일월드컵에서는 '사커 루' 호주를 사상 처음 본선에 올려놓더니 아예 16강까지 이끌었다.

유로2008 예선에서도 러시아는 '종가' 잉글랜드를 승점 1차로 밀어내고 크로아티아에 이어 E조 2위로 드라마같이 본선 티켓을 따냈다.

본선에서도 스페인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대패해 탈락 위기에까지 몰렸지만 지난 대회 우승팀 그리스, '바이킹 군단' 스웨덴을 잇따라 제압하면서 당당히 조 2위로 8강행 진출을 확정했다.

'히딩크 매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러시아-네덜란드전에 쏠리고 있다.



러시아팀 사령탑을 맡고 있는 히딩크 감독이 19일 스웨덴을 2-0으로 꺾고 8강행을 확정짓자 환호하고 있다.